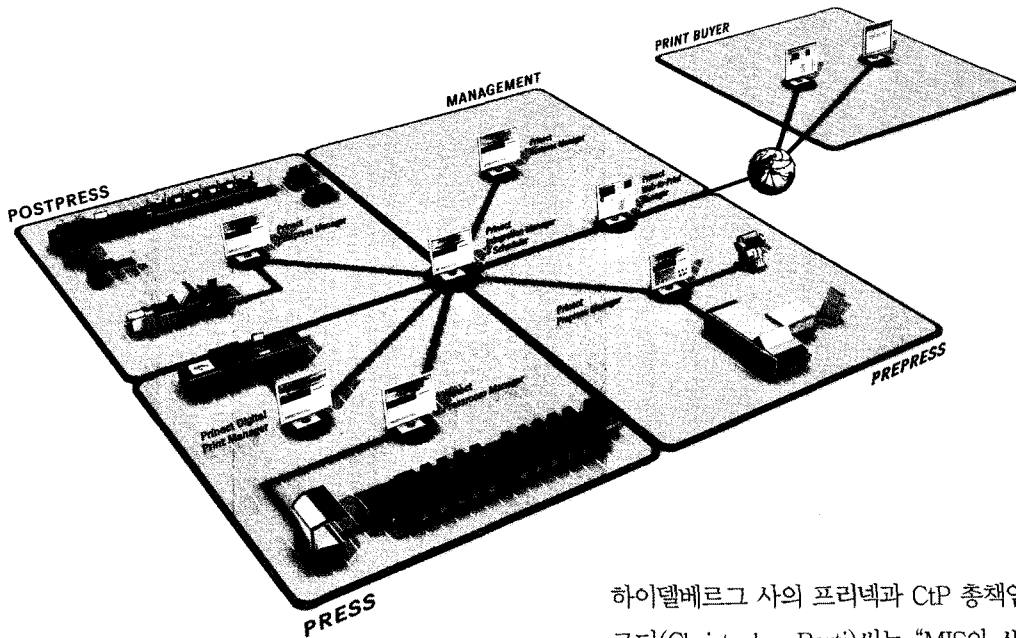


MIS, w2p, 디지털, 패키징 인쇄가 인쇄성장동력 하이델 프리넥 워크플로 기능 확대 시동

글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경영정보시스템(MIS), 웹투프린트 솔루션, 디지털, 패키징 인쇄 등 4개 부문은 최근 인쇄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하이델베르크 사는 이 4개 부문들에 관계된 프리넥 워크플로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하이델베르크사의 관계자는 “미래에는 프리넥 워크플로가 유일하게 완벽히 통합되는 MIS를 갖춘 솔루션이 될 것이다. 이 시스템은 하이델베르크 사가 올해 합병한 소프트웨어 제조사인 CERM의 MIS 기술에 기초한 것으로 프리넥 비즈니스 매니저(Prinect Business Manager)라는 이름으로 소개될 것이다. 비즈니스 매니저는 응용 범위가 넓고 모듈식 디자인으로 다양한 인쇄사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JDF/JMF 기반의 프리넥 워크플로로 새롭게 소개되는 프리넥 비즈니스 매니저의 통합은 공정 자동화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크게 높이며 데이터 취급을 단순하게 하는 선도적인 기술이다. 이는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 인쇄사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2단계 개발에 돌입한 프리넥 비즈니스 매니저는 생산 워크플로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전용 솔루션을 공급한다. 그 결과 작업 계획과 생산 데이터를 동일한 시스템에서 볼 수 있다.

하이델베르크 사의 프리넥과 CtP 총책임자인 크리스토퍼 베르티(Christopher Berti)씨는 “MIS와 생산 워크플로우의 통합으로 프리넥의 투명성과 자동화는 미래에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 의미는 일례로 작업에 급박한 변경 사항 발생해도 기계 선택과 원료 관리 부분 모두에서 프리넥에 자동으로 실행된다. 하이델베르크는 JDF 통합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역에서 지금까지 따로 분리되어 있었던 두 시스템의 환경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잠재력 가진 웹투프린트 비즈니스 모델

웹투프린트(W2P) 시장 잠재력은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다. 향후 웹투프린트의 확장된 프리넥 기능으로 하이델베르크 고객은 매우 자동화된 솔루션으로 이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앞으로 출시되는 프리넥 버전은 웹샵(webshop) 인터페이스와 웹투프린트 워크플로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은 혼합된 품을 제작하거나 가장 적합한 생산 기술을 선택하는 등의 일을 자동화할 수 있다. 웹투프린트 기능은 또한 중앙 프리넥 데이터베이스, 즉 MIS와 생산 워크플로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방법으로 인쇄물 주문자는 맞춤형 웹투프린트 포털을 통해 주문을 하거나 인쇄 승인을 할 수 있다. 모든 관계된 정보는 프리프레스, 인쇄 및 후가공 뿐 아니라 자동으로 작업 관리와 회계 부서로 제공된다. ↻